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주말을 보내기'에 대한 고민은 사치스런 일이었다. 그냥 일에 쫓기다 하루 맞이하는 휴일, 낮잠을 자든지 몇 달 떨어진 나들이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감지덕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금, 주5일 근무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잘 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이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 변화는 종교계에서도 특별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부처님 품에서 온가족이 주말을

가족 신행프로그램 준비 활발



▷감포 관음사 주말 가족수련법회인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가족들이 도자기를 직접 빚는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맞추어 불교계에서도 의례적인 예불 의식이나 법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법회나 수련회로는 젊은 세대와 도시인들의 감수성과 공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계는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해 가족수련법회와 부부법회, '영어로 진행되는 법회' 자원봉사 프로그램, 강좌, 생태기행, 문화답사, 주말농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 관음사 가족수련법회 대구 관음사가 7월 개원한 감포본원은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가족수련법회인 '템플스테이'를 상설운영하고 있다. 1박2일 동안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바루공양과 간경, 사경, 참선, 산행, 농사짓기 등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관음사 영남불교대학은 8월부터 온 가족이 함께 배우는 '53 선지식 특별초청 강좌'를 개설,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배우는 기회도 제공한다. (053)473-5802

▷전국비구니회관 주말 강좌와 봉사 프로그램 최근 개원한 서울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도 주말 가족 신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10월부터 '스님께 배우는 어린이 한자교실', '영어로 이야기 교실', '경전 이야기 교실' 등 강좌를 개설하고, 가족들이 함께 하는 자원봉

▷노인잔치=서울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2일 오전 11시 복지관 특설 야외무대에서 연예인 단체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 노인잔치를 개최한다. (02)385-1351

▷정기 강좌=서울노인복지센터는 10월 셋째 주부터 정기강좌를 시작한다. 일어교실은 15일부터 화, 금 오후 2~3시, 영어교실은 오후 2~3시, 중국어교실은 오후 1~2시. (02)739-9501

▷이동목욕서비스 대상자 모집=영주시장애인복지관은 15일까지 65세 이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054)633-6415

▷무료법률상담=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12일 오전 10시 복지관 2층 상담실에서 박성기 변호사를 초청해 전세, 채무, 상속, 이혼 등 법률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무료 상담시간을 마련한다. 접수는 5일까지. (051)271-0560

▷치매예방체조=부산 남구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금요일 오후 1~2시마다 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예방체조를 교육한다. 가벼운 인사체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소리지르기, 스트레칭 등을 통해 재미있게 체조를 배우는 시간. 자원봉사자 신순하씨의 지도로 진행된다. (051)628-6737

▷노인 위안 공연=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오후 2시 국민대 체육관에서 춤마당, 풍물, 스포츠댄스 등 노인 위안 공연을 실시한다. (02)929-7950

▷'호수노인문화축제'=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19~20일경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제3 호수노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개막식은 19일 오전 11시. 전시회, 민속놀이, 초상화 그리기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031)919-8677

▷가족 주말 여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02)3411-8103

▷정토회·재가전대의 주말농장 불교계 NGO단체인 정토회에서는 올초부터 주말 농장을 개원해 운영 중이다. 매해 새로운 참가자의 분양 신청을 받아 씨뿌리기, 김매기, 추수

▷영·부부법회·생태기행·주말농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행·휴식 함께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생태기행과 문화강좌 등을 실시, 단순히 보기만 하는 사찰 답사가 아니라 배우고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석불선양회 역시 전국에 분포한 석불을 가족 단위로 찾아가 살피는 순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친견 후 석불에 관

한 강의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 (02)712-5813, (01)277-6758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생태기행과 문화강좌 등을 실시, 단순히 보기만 하는 사찰 답사가 아니라 배우고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석불선양회 역시 전국에 분포한 석불을 가족 단위로 찾아가 살피는 순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친견 후 석불에 관

영·부부법회·생태기행·주말농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행·휴식 함께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생태기행과 문화강좌 등을 실시, 단순히 보기만 하는 사찰 답사가 아니라 배우고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석불선양회 역시 전국에 분포한 석불을 가족 단위로 찾아가 살피는 순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친견 후 석불에 관

정 담긴 편지 써 보세요

누군가를 머리에 떠올리며 종이에 도착도 막 글씨를 써서 편지를 붙이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 전 화, 이메일이 편지쓰기를 아주 흔시적인 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가을 분위기를 잡아 가고 있는 요즘, 하얀 종이에 정성을 담은 편지를 써보자. 부모,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친구, 그 누구라도 어머라.

상상해 보라, 쌓인 업무로 지쳐가던 직장에서 아내가 보낸 편지에 감동 받아 들썩해질 가장의 어깨를, 학교로 도착한 예기치 못한 편지 한 통에 활짝 피어날 우리 아이들의 미소들. 지금 당장 편지를 쓰자. 정성을 인 편지에 예쁜 유포도 한 장 붙여 서, 오랜 만에 집 안에 서있는 빨간편, 친구, 그 누구라도 어머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행복한황혼

내 안의 너 안의 나

우울증에 빠진 어느 부인 이야기

대학교 3학년 때 남편을 만나 4년간 열애한 끝에 결혼한 부인은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남편은 수입도 좋은 편이어서 부인은 결혼 초부터 생활의 어려움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 모두가 성실한 노력파들이어서 각자 많은 바 일들을 잘 해 나갔습니다. 그런 그녀의 가정도 불행의 그늘이 씌워지기 시작한 것은 가장인 남편이 폐암선고를 받고 난 후 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고부터는 불행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35년 동안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해 오던 남편이 저 세상으로 떠나가고 혼자 남은 시간을 힘겨워 하던 부인은 망명서의 권유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간 첫 날, 애매가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이 모여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교우들은 하나님 품으로 온 부인을 환영하면서 곧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생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큰 망명서가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고 남편과 여겼던 이야기를 했

다. "섬진강 강가에서 점심을 먹게 됐는데 저는 재첩국을 먹고 우기고 남편은 참깨탕을 먹고 우기다가 결국 싸움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과 저는 식성이 달라서 여행한 거면 먹는 걸로 싸우다가 말도 안하고 온다니깐요." 그 순간 부인의 가슴 속엔 화살 하나가 날아와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꽂힌 자리에 온 불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남편에 대한 그리움, 여행을 가서 식성이 다른 남편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부인은 그 후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우울증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부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저는, 부인의 남편을 잃은 슬픔을 충분히 이야기 하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남편을 잃은 후에 겪었던 갖가지 슬픔과 외로움, 주위로부터 받았던 상처 등을 털어 놓았습니다. 가슴 속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고난 부인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 하더니,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네요."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혈관에서 피가 돌고 있는 것 같다고 할

무심코 맺은 말 타인에게 상처될 수도...

면서 남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던 기억을 하나 하나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남한테 상처를 준 말을 했던 기억도 하나하나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한참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던 부인은 "말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군요. 특히 자랑하는 말이요. 제 아이들 얘기를 듣고 형님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이제야 알 것 같네요." 하며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안 부인은, 용서의 마음도 함께 알은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입(口業)은 꼭 악담으로 짓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면 그것 역시 틀림없이 구입이 될 것입니다.

* 내인의 너, 내인의 나 는 소설가 남지심씨가 운영하는 불교상담기관 화연과 공동기획으로 진행됩니다. 소설 <우물만> <달마잡> 등의 저자인 남씨는 지난 8월부터 서울 마포에서 번외로 피로회복하는 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화연 (02)704-3577

육임래정비법혁신판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향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 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五術之中帝王」이요, 「神示」라고도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때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할 것인지, 이사하면 언제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무능인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צי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 一男二女 관계인지 二男一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뱌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탈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시식 국 부작)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자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올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찾을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은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는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는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볼 것인지
- 동 등 인간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둑을 잡아 주십시오

도둑놈들이 책을 대량 복사해서 팔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본 책을 개인이 판매하려 다니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부산지사서 전화주문으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개인이 찾아와서 저와의 연고를 빙자하면서 이 책을 싸게 사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조직적으로 대량복사 했거나 도용인쇄하여 팔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본이 아닙니다. 이렇게 책을 구입하셨거나, 개인이 찾아오거나 전화해서 책을 사라고 하는 경우를 경시할 때는 바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인적사항과 인상착의를 함께 알려 주시면 본책을 한권 드리거나 현금1백 50만원을 즉시 사해하겠습니다. 저는 이책을 쓰기까지 처자식을 팔게 되었고 7년을 산속에서 신을 했습니다. 또,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이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2년여에 걸쳐 이 책이 신봉하기로 검증이 되어 활인친역동역자 계위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의 7년의 산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파렴치한 자들이 저의 책 생명 강의를 몇몇돈과 저로부터 육임을 배웠다고 자칭하면서 마치 저와의 인연이 깊은양 말하고 다니며 제가 쓴 책들을 대량 복사하여 조직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이 고충을 심분 이해해 주시고 이 사람들을 바로 살게 하는데 협력하여 주십시오. 저의 직통 전화는 02)996-3335입니다. 호사 배상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학약이나수나 어떤 명리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그날치 한장의 시간만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친역(活人天啓)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임시 선계 구체 취적 승진 때에 입신 기술 등등 인간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바인더차트 每一式

■ **활인전문천역차용**
(부록 설명비디오 포함)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500,000 (휴대용)
- 호사 육임강의록 ₩300,000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300,000 (좌정용)
- 호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 28개) ₩900,000

● **강의신청 「육임학당호사속」 02-998-8683**

■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서울강남지사 02-2203-480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